

9월 車 수출 코로나19 이후 첫 상승 전환...생산·내수 ↑

국산차 판매 증가와 영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자동차 산업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3.2% 늘어난 34만 2489대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와 기아는 각각 24.4%, 17.1% 증가한 15만 3174대, 13만 2079대를 생산했다. 한국지엠도 121.6% 늘어난 3만 8768대를 기록했다.

반대로 쌍용과 르노삼성의 생산 대수는 각각 9573대, 8557대로 10.2%, 36.5% 줄었다.

산업부는 내수 증가세 회복과 수출 동반 증가에 따라 생산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영업일수가 3일 늘어난 덕도 봤다.

지난달 내수의 경우 전년 대비 22.2% 증가한 16만 2716대가 팔렸다.

북미 시장 회복에 긍정적 영향

작년보다 영업일수 3일 늘어

전기차 수출 38개월 연속 증가

현대와 기아는 각각 33.8%, 21.9% 늘어난 6만 7075대, 5만 1211대를 팔았다.

한국지엠과 쌍용의 내수 판매도 각각 17.9%, 13.4% 확대된 6097대, 8208대로 집계됐다. 반면 르노삼성은 24.1% 줄어든 5934대를 팔았다.

특히, 판매 실적 5위 안에 모두 국산차가 이름을 올린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그랜저가 1만 1690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카니발(1만 130대), 쏠렌토(9151대), 아반떼(9136대), K5(7485대) 순이다.

수입차 판매는 2만 4945대로 9.7% 증가했다. 일본과 독일 수입차 판매는 각각 32.2%, 6.5% 늘었다. 이외에 영

국(-17.0%), 스웨덴(-19.6%), 프랑스(-22.2%), 이탈리아(-35.8%)산 차 판매는 줄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4.8% 늘어난 19만 3081대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현대(6.7%, 7만 8165대), 기아(12.8%, 7만 7200대), 한국지엠(117.5%, 3만 4498대) 등이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쌍용(-46.7%, 1626대), 르노삼성(-80.3%, 1452대)은 부진했다.

자동차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수출액이 19억 4300만 달러 60.1% 증가했다. 동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수출도 각각 22.4%, 30.7% 늘어난 2만 8800만 달러, 2만 2800만 달러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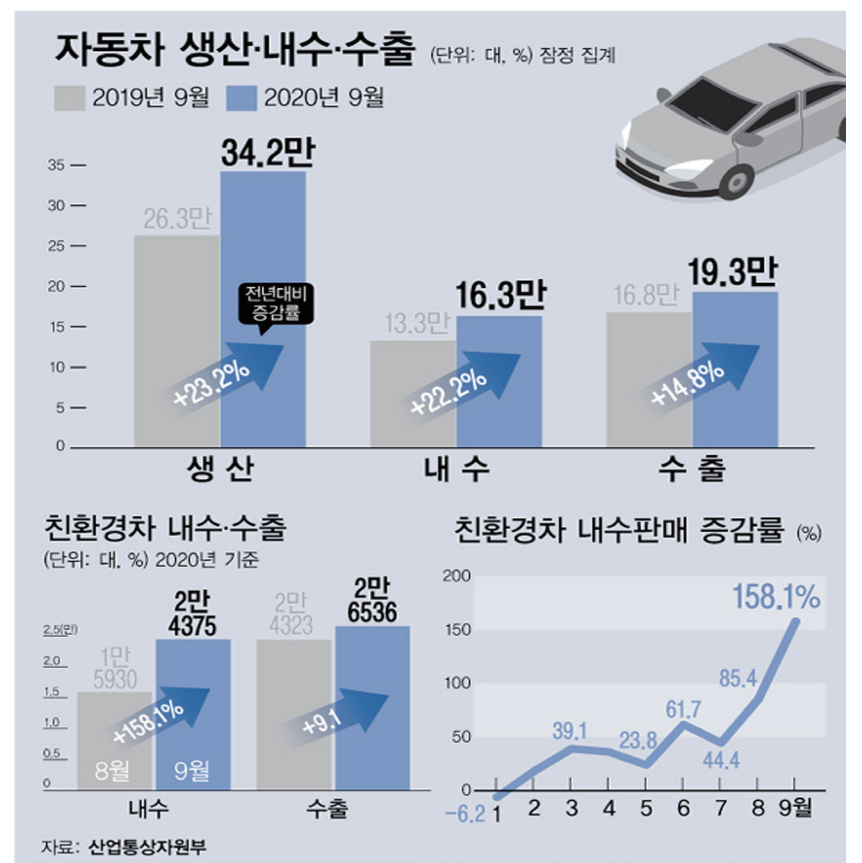
이외에 유럽연합(6억 5500만 달러, -1.4%), 중동(3억 4700만 달러, -5.6%), 중남미(9800만 달러, -42.5%), 아프리카(5700만 달러, -22.1%), 아시아(1억 7500만 달러, -5.5%) 지역으로의 수출은 부진했다.

전환경차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2만 6536대로 집계됐다.

현재 전기차는 38개월 연속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판매는 158.1% 늘어난 2만 4375대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북미 판매시장 회복과 유럽 내 완성차 재고 수준 정상화 등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19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민경기자



빅히트 줍줍한 재미... '남시글'에 롤러코스터

"물렸다" 탄식하다 반등하자 "기다리자"



사람들 사이에 들고 있는 가짜뉴스 캡처

빅히트가 코스피 상장 사흘째인 19일 한때 반등하는 등 하락세가 전보다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희망과 기대를 품다가도 연이은 '남시글'에 절망하는 등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분위기다.

이날 빅히트는 전 거래일(20만 500원) 대비 2000원(1.0%) 내린 19만 8500원에 출발했다. 개장 직후 20만 원 선이 붕괴되더니 장중 19만 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앞서 빅히트는 공모가(13만 5000원)의 160%인 35만 1000원에 적발했지만 이를 만에 42.87% 급락했다. 상장 사흘째인 이날에는 하락폭이 이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다. 다만 이전

과 다르게 장중 한때 반등하다 보합하는 등 숨고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하락세가 이어지자 온라인 종목게시판에는 탄식이 계속됐다. 투자자들은 "30만원에 샀는데 완전 물렸다(고점에 샀는데 계속 하락해 매도 시기를 놓쳤다는 주식 은어)", "자기 당한 기분이다", "개미들 무덤으로 전략한 빅히트" 등의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할 수 있다면 환불받고 싶다", "빅히트를 끝으로 다시는 주식 안 한다"는 후회도 이어졌다.

그러다 오전 11시께 한때 반등하며 20만원 선을 회복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게시판에는 "다시 오르네요. 힘

냅시다" "빅히트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우리 팔지 말고 기다리자", "좋은 날 반드시 올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 밖에 "그래도 방탄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는 기대도 피어올랐다.

이처럼 희비가 교차하는 사이 '남시게시판'도 다수 발견됐다.

앞서 초보 투자자들이 "혹시 환불도 가능하냐"고 올린 게시물이 회자되자 "빅히트 주시 환불규정 긴급 승인이 오늘 5시 내로 발표된다"는 가짜 뉴스가 돌기도 했다. 또 "국민청원 100만 명 넘으면 환불해준다고 하더라"는 글들도 올라왔다.

빅히트는 상장 후 이들 간 외국인과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개인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만 727주, 31만 5830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55만 7023주를 순매수했다. 상장 첫날 기관들의 순매도 종목 1위가 빅히트였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매물을 하락장에 대거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오르내림 속에 기대와 절망 사이를 오가는 상황이다.

앞서 빅히트는 올해 IPO(기업공개) 대머로 기대를 모으며 코스피 역대 최고 청약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상장 후 급락했고 단숨에 시가 총액 약 5조원이 증발했다. 상장 첫날 1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던 시총은 현재 약 6조 6677억원까지 줄었다. 코스피 시총 순위도 29위에서 39위까지 떨어졌다.

김미희기자

카뱅, '10대 청소년'도 이용가능해진다...미니 출시

만 14~18세 청소년 전용 지급수단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미니는 만 14~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입금과 이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

미니는 온·오프라인 결제수단도 제공한다.

미니를 개설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 가능하다.

기존에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이용자 제한 없이 제공했던 월렛,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청소년에 한정해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금 위주의 거래가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는데 전자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은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청소년 전용 서비스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 가맹점에

서만 사용할 수 있다. 클린 가맹점은 청소년 입장 제한 주점 등을 제외한 가맹점이다.

미니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잔액, 이용내역 조회를 하면 된다. 실시간 알림으로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도난·분실시 카카오뱅크 앱에서 거래정지 신고가 가능하다.

오묘현 카카오뱅크 서비스기획팀장은 "10대들 사이에서의 부정(금융거래)행위는 현금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현금은 누가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원하지 않는 거래도 있었을텐데, 미니를 이용하면 거래 내역이 기록돼서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설명했다.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이고,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안정성을 고려해 정한 한도라는 게 카카오뱅크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앱 '소득공제 신청하기'에서 미니 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 소득공



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또 금융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익숙해지도록 이용가이드도 마련했다. 실명이체에 대한 안내와 편리하게 이용하는 팁을 구성해 콘텐츠로 제공한다.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이 지급하는 등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카카오뱅크만의 고객 경험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 기능을 담기 위한 방안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했다"며 "모바일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편리하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승호기자

리니지M, 3대 모바일 앱시장 통합 매출 3개월 연속 1위

넥슨 '바람의나라: 연' 2위, 엔씨 '리니지2M' 3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3대 모바일 앱마켓 게임 통합순위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9일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9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의 게임 매출 기준 통합 순위에서 리니지M이 1위, 바람의나라: 연이 2위, 리니지2M이 3위에 자리했다.

9월 통합 랭킹 최상위권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리니지M이 3개월 연속 왕좌의 자리를 수성했다.

엔씨의 리니지2M은 지난 8월 대규모 공성전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넥슨의 바람의나라: 연의 기세를 넘어서지 못했다.

10위권에서는 인기가 급상승 중

인 게임들이 올라왔다.

유주게임즈의 '그랑삼국'은 출시 직후인 6월 통합 랭킹에서는 중위권인 41위를 기록했지만 차츰 인기를 끌어올리며 9월 통합 랭킹 4위까지 도약했다.

특히 윈스토어 유저들에게 독보적인 인기를 차지하며 윈스토어 랭킹 1위에 등극한 것이 순위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

웹젠의 'R2M'도 지난 8월 78위로 진입했지만, 이후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선보이며 랭킹 5위까지 급상승했다.

넥슨의 '피파 온라인 4M'은 윈스토어에서 3위를 차지하며, 통합 랭킹 6위로 꾸준히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60~70위권대에 머물던 '건설배틀 토탈워페어'는 8월 말 윈스토어에 입점해 신규 유저 유입에 성공하며 전월대비 32계단 반등한 통합 랭킹 38위에 올랐다.

50~100위권에서는 새로운 OST 음원 공개 등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 킹스레이드가 전월 대비 50계단 오르며 100위권에 진입, 통합 랭킹 58위를 차지했다.

킹스레이드는 윈스토어에서 30위에 오른 것이 통합 랭킹 상승으로 이어졌다.

65위를 차지한 삼국지전략도 구글에서는 121위를 기록했지만 윈스토어에서 36위를 차지하는 강세를 보이며 지난달보다 136계단 상승했다.

기동취재본부

갤럭시S21 조기등판...내년 1월초 공개 가능성

한달 가량 출시 일정 앞당겨

삼성전자가 상반기 플래그십(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1'을 예년보다 빨리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샘모바일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21은 내년 1월 공개돼 1월말~2월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통상 갤럭시S 시리즈를 2월 발표한 뒤 3월 초 출시해왔는데, 이번에는 한달 가량 출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판매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월에는 S시리즈, 8월엔 노트시리즈를 공개해왔는데, 올 하반기엔 8월부터 10월까지 갤럭시노트20, 갤럭시Z폴드2, 갤럭시S20 FE 등을 온라인에

서 공개하는 연팩 행사를 열었다. 이에 따라 갤럭시S21을 최근 출시한 갤럭시S20FE, 갤럭시Z 폴드와 서로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다.

부품업계에서는 삼성이 갤럭시S21 초도물량 양산을 올 12월 중순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도물량 양산이 빨라지면 출시일도 당겨진다. 아울러 삼성이 미국 정부 제재로 인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와 경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럭시S21은 일반, 플러스, 울트라 세 가지 모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정보 유출로 유명한 트위터 은리크스(@OnLeaks)는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S21 모델별 렌더링을 공개했다.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갤럭시S20과 노트20에서 지적된 '카툰튀(카메라 돌출 현상)'가 완화된 점이 눈길을 끈다.

정승호기자